

제20호 영림전자공업(주)윤진봉 부장



믿음에서 시작해서 노사화합까지

아~아~너와 나의 꿈 크는 일터. 무재해 깃발아래 산업안전 지켜가면 너와 나 우리모두 행복으로가는길. 영림전자공업(주)윤진봉 부장이 애창하는 박연홍작사, 이창홍작곡의 「산업안전의 노래」이다.

평소에도 항시 안전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윤진봉 부장을 이달의 자랑스런 안전인으로 소개한다.

■ 프레스공에서 안전관리자로

윤진봉 부장은 1985년 1월 전자렌지 부품 중 하나인 Door Ass'y를 생산하는 영림전자공업(주)에 프레스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빈발하는 프레스 협착사고로 본인은 물론, 많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는 것을 보고 과감히 안전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후 산업안전산업기사(당시 산업안전관리기사 2급)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전담 안전관리자의 진면목을 발휘하였다.

■ 정보교류가 경쟁력


정보사회에 발맞춰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진봉 부장은 모기업과의 협성회를 통한 안전관리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의 뜻이 있는 20여개의 중소기업이 한데 모여 '환경안전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업종의 안전관리자들이 모인 '인우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타회사의 안전관리를 보며 현 실정에 अनु주하지 않고 발전적이고 새로운 안전에 도전하고자 함이다.

■ 믿음에서 비롯된 안전

윤진봉 부장이 말하는 안전관리의 시작은 믿음이며, 관심이다.

서로간의 믿음과 관심에서 경영자와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를 믿고 따르며, 안전관리자는 그들을 가족처럼 여길 때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가 비로소 정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영림전자공업(주)는 무재해 7배라는 꽃을 피우고 더 나아가 노사화합의 열매까지 수확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지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산재예방유공 정부포상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다.

MF 이후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안전분야가 많이 위축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윤진봉 부장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안전이 모든 기업에 뿌리내려 안전분야의 위상이 높아질 때까지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항시 노력할 것이라고 두 주먹을 굳게 쥐었다. 

〈성호연기자〉

